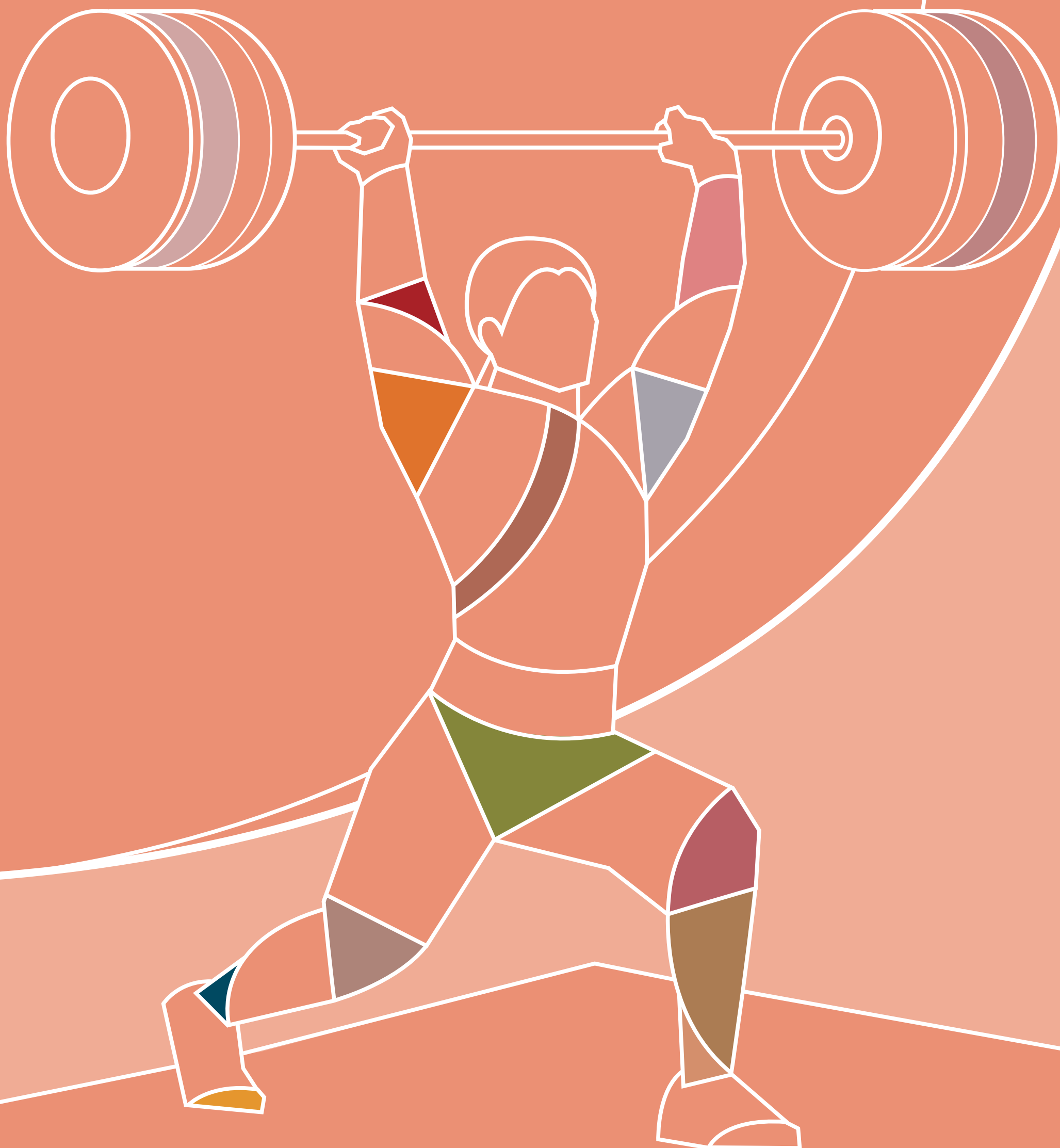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 부산시가속속속!



Vol. **53**  
2024. 09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롤러스포츠연맹  
김태형 회장

**부산체육 꿈나무**  
부산 수영계에 금빛 물결을 일으키다!

**부산체육 스타**  
KT사격선수단  
박하준 선수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영도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매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 부산체육독독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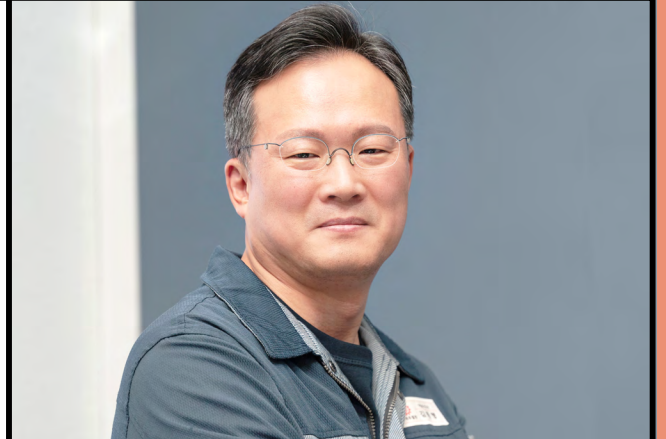
Vol. 53  
2024. 09

1

## 부산체육인

탁월한 경영능력과 봉사정신으로 부산롤러스포츠  
저변 확대를 꾀하다

부산광역시롤러스포츠연맹 김태형 회장



2

## 부산체육 꿈나무

부산수영계에 금빛 물결을 일으키다!

모전초등학교 박채운 학생



3

## 부산체육 스타

성장, 현재진행형

KT사격선수단 박하준 선수



4

## 체육회 수탁시설 소개

영도국민체육센터



# 탁월한 경영능력과 봉사정신으로 부산롤러스포츠 저변 확대를 꾀하다

부산광역시롤러스포츠연맹 김태형 회장

2009년, 부산광역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으로 취임해 롤러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김태형 회장. 오랜 세월 선수들의 든든한 아버지 같은 존재로 롤러스포츠를 묵묵히 후원해온 그를 만나보았다.

내로라하는 기업가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김태형 회장은 올해로 15년째 부산광역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긴 시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남다른 인연 덕분이다.

“부친께서 제6대, 제7대 롤러스포츠연맹 회장직을 맡아 일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롤러스포츠라곤 몰랐는데, 부친께서 하시는 일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롤러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09년부터 부친의 뒤를 이어 연맹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 내어놓는 것 뿐이라며 스스로를 낮추는 김 회장도 연맹회장직에 부담감을 느끼던 때가 있었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 일에 익숙하진 않았습니다. 본업이 바쁘니 연맹 회장직을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문제들

대부분이 단기간 해결이 어렵고 장기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들이라,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만난 선수들과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미약하나마 롤러스포츠 선수들이 꿈을 펼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적잖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는 롤러스포츠를 사랑하는 체육인들은 물론, 앞으로 롤러스포츠에 입문할 예비 롤러인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롤러스포츠는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종목보다 자유로운 운동입니다. 더위 탓에 운동을 미뤘던 분들이라면 가을이 오는 지금, 롤러스포츠를 즐기러 나오셨으면 합니다. 사하구(을숙도인라인경기장), 사상구(삼락생태공원), 강서구(맥도생태공원), 북구(화명생태공원), 동래연제구(온천천인라인연습장) 등에 롤러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롤러스포츠 선수의 꿈을 꾸고 있는 꿈나무들, 지도자 선생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습니다.”

# 부산 수영계에 금빛 물결을 일으키다!

모전초등학교 박채운 학생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수영에서 18개의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그중에서도 부산의 유일한 다관왕으로 화제를 모은 박채운 학생을 만나보았다. 7세 때 수영을 시작했다는 박채운 학생. 수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억을 묻자, 표정이 밝아지며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을 회상했다.

“7살 크리스마스 즈음부터 가족들이랑 동네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다들 수영을 좋아해서 같이 하다 보니 저도 점점 재미를 느꼈어요. 특히 하와이 바닷가에 서 함께 수영했던 기억이 가장 남아요.”

박채운 학생은 소년체전에 앞서 올해 3월 열린 김천전국수영대회 배영 50m, 자유형 50m와 5월 동아수영대회 배영 100m에서 모두 우승을 거뒀다. 어떤 종목이 더 자신 있냐는 질문에 박채운 학생은 잠시 고민했다.

“더 자신있는 종목을 꼽기는 어려운데, 올해 소년체전 때는 배영하는 날에 컨디션이 좀 더 좋았나 봐요. 요즘에는 배영이 더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접영은 조금 약해서 더 연습하고 싶어요. 접영은 멋있긴 한데 정말 힘들거든요.”

박채운 선수는 지금보다 더 어릴 적부터 많은 훈련량을 소화해 왔으며, 특히 전지훈련 기간에는 육상에서의 체력 단련 운동과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부목을 차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일 기장에서 영도까지 오가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런 박채운 선수가 최근 훈련에서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코치님과 함께 기록 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체력은 좋은 편인데, 팔을 더 빠르게 돌리려면 팔 근력을 많이 키워야 해서 신경 쓰고 있어요. 골고루 잘 챙겨 먹고, 팔굽혀펴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키도 쑥쑥 더 크고 싶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키가 크신데,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만큼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인터뷰에 수줍어하는 초등학생이지만, 또래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들보다도 수영과 기록 경신이 가장 큰 관심사인 박채운 학생.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열정이 그의 밝은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언젠가 올림픽 무대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활약할 그의 모습을 그리며, 그의 꿈을 힘껏 응원해 본다.

# 성장, 현재진행형

KT사격선수단 박하준 선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33회 파리올림픽. 특히 올림픽 초반 사격 선수들의 선전이 화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낭보를 전한 첫 메달의 주인공 박하준 선수를 만나 이번 올림픽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누나한테 지는 걸 워낙 싫어했어요. ‘누나가 하면 나도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누나를 따라 사격장에 가서 몇 발 쏘았는데, 바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제33회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 첫 메달의 주인공인 박하준 선수.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격을 시작, 한 달 만에 초등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량이 남달랐다.

본격적으로 사격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생 선수들의 기록을 뛰어넘었을 땐 스스로도 사격에 소질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 그에게 자극이 된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누나였고, 사격에 관심이 생긴 것도 누나가 집에 메달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였다. 그의 누나는 바로 이번 파리올림픽에 공기소총 국가대표로 선발된 박하향기 선수다.

선수 생활 내내 박하준 선수의 기록은 꾸준히 상승세다. 매년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고, 평균 기록도 해마다 갱신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공기소총 최고 기록도 그의 기록이다. 또한 각종 대회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수많은 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중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 은메달,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 은메달, 혼성 공기소총 10m 동메달 등 출전한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2023년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잊지 못할 대회로 꼽았다.

“사실 아시안게임, 올림픽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회잖아요. 사람들에게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는 파리에 다녀와서도 ‘2024 춘천시장배 전국사격대회’,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 출전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했다. 다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는데, 곧 개막하는 전국체육대회, 2026년 나고야아시안게임, 2028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월등한 실력으로 대한민국 사격 10m 공기소총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하준 선수가 세계랭킹 1등이 되는 날이 기다려진다.





## 구민들을 위해 한 발 더 앞서, 모든 연령대를 사로잡다

### 영도국민체육센터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 누구나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에서 색다른 스포츠를 경험해 보자.

영도국민체육센터는 2009년에 개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지하 1층 수영장과 헬스장, 1층 탁구장과 체조실, 2층 스쿼시장과 스크린 골프장, 3층 골프 연습장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4층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수탁 운영 후 2019년에는 월평균 3,500명 회원이 등록하여 개관 이래 역대 최대 회원 수를 기록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실내체육관 운영을 재개하면서 다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타 센터에서 보기 드문 프로그램인 골프, 스쿼시, 스피닝, 피클볼, 댄스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양질의 수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전 직원 대상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며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분기마다 진행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경우 미끄럼 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민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영도국민체육센터는 건강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청소년과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수영대회, 스크린골프대회 등 스포츠클럽 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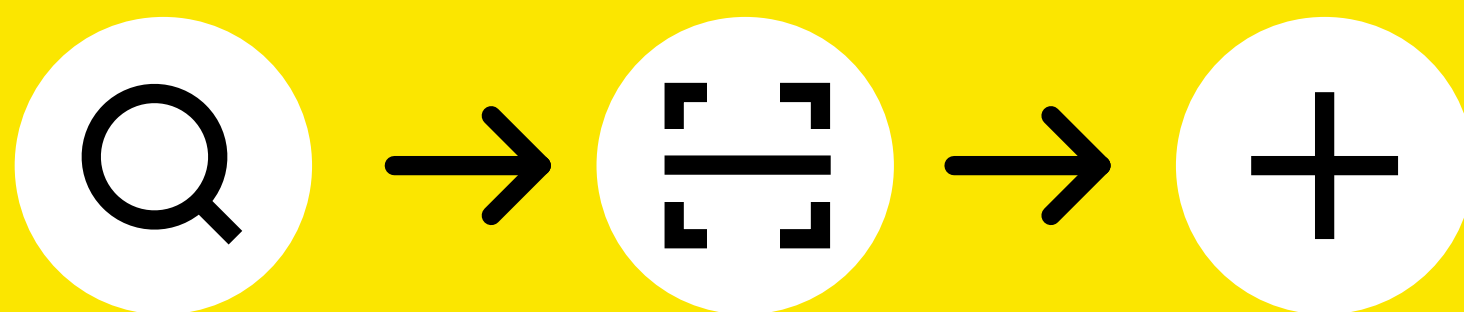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부산체육 톡톡, 언론보도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